



학회와 함께한 사람들의 편안한 이야기



전 병 우 /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제16대 회장

Q1. 우리 학회와의 첫 인연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제가 우리 학회에 가입한 것이 1998년 4월입니다. 1997년 9월에 삼성전자에서 성균관대학교로 옮겼는데, 학교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던 와중에도, 첫 학기가 지나자마자 학회 입회원서를 내었습니다. 1993년에 삼성전자에서 HDTV 개발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영상압축과 영상처리 분야에 몸담아 온 것을 돌이켜 보면, 우리 학회와의 만남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제 연구 인생의 동선상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필연적인 인연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2. 그 당시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신다면요?

A 돌이켜 보면 지금 인공지능(AI)의 돌풍에 비견할 만큼 199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방송과 통신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세상의 기술 기반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변곡점의 시기가 바로 그때였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지금의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HDTV를 필두로 하는 디지털 방송이 있었고, 그 흐름의 중심에 우리 학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서는 영상서비스의 주요 토대가 전통적 개념의 방송에서 통신망 특히 이동통신망이나 인터넷망을 통하여 영상을 전송하는 응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스트리밍’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 당시 저는 학교에서 H.263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CIF, 그러니까 352x288 크기의 영상이나 이의 1/4 크기인 QCIF 영상을 압축하여 스트리밍하는 연구를 하고 학회에서 발표도 하였습니다. 4K 비디오가 일상화된 지금 QCIF 영상을 보여주면 아마 “이게 썸네일인가요?”라고 할 것이니 격세지감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않을까 합니다.

Q3. 학회장으로 재임하시던 시기는 어떤 때였나요?

A 우리 학회는 돌이켜 보면 1994년 창립 이후 처음 10년 정도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고, 그 다음 10년은 1차 성장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 10년은 학회가 한 단계 더 확장된 2차 성장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16대 학회장을 맡았던 2019년은 바로 그 2차 성장기의 중간쯤 되는 시기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창 성장하면서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더 커 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학회가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학회의 관심도 전통적인 방송 기술에서 보편적인 미디어와 서비스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학회의 영역이 방송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속으로, 인터넷 플랫폼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넓혀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Q4. 학회장으로 하셨던 일들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크게 세 가지, 즉 “방미공”, “확산기술워크숍”, 그리고 “인공지능연구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것 아셨습니까? “방미공”이라는 그 친숙한 용어를 최초로 만들어 여러분들 일상대화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도록 애를 쓴 사람이 바로 제16대 회장이었다는 것을!!!!

“방송미디어공학회”라는 이름은 공식 명칭으로는 매우 좋지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부르기에는 조금 긴 편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무엇이든 줄여 부르는 방향으로 세상이 가고 있었고, 저도 그 흐름을 따라 “방미공”이라는 말을 만들어 여러 회의와 크고 작은 모임에서 취지 설명과 함께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회원들 사이에 익숙해지도록 한 장본인이 제16대 회장이었다는 점은, 나중에라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부르기 편해야 마음도 더욱 가지 않겠습니까?



“확산기술워크숍” 그리고 “인공지능연구회”는 우리 학회의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 작은 씨앗들을 심었던 일들입니다. 당시 저는 우리 학회가 전통적인 방송 기술의 틀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필요가 있고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인 실천을 하여야만 한다는 강한 심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회 이름을 2015년에 한국방송공학회에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로 바꾸고 우리의 영역을 넓히고자 뜻을 세웠지만 그 구체적 실천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깊은 성찰의 결과로 탄생한 씨앗들이지요.

그런 취지에서 확산기술워크숍을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상임이사직도 새롭게 세웠습니다. 학회의 영역을 넓히려는 조직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써 주신 초대 확산기술 상임이사 류은석 교수님께 뒤통스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씨앗을 심은 것이 2019년 12월,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인공지능연구회”입니다. 인공지능을 우리 학회의 미래 분야 중 하나로 키워 보자는 작은 시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계학술대회에서 젊고 역량 있는 연구자들이 활발히 모이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서로 배우는 모습을 보면 그 씨앗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무척 보람을 느낍니다. 덕분에 최근에는 영상처리와 컴퓨터비전 기술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회의 관심 분야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역시 학회가 해야 할 가장 본연의 역할은 사람들이 모이고, 배우고,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Q5. 연구자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일은, 제가 오랫동안 참여해 온 영상압축 표준화 분야에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흐름이 형성되는 데 제가 작은 씨앗의 역할이나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1994년부터 MPEG 표준화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국제표준화에 참여하는 목적은 주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회사 또는 연구소에 전파하여 개발에 반영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말하자면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고 배우는 입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우수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기고하고, 중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 표준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위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배우러” 갔다면, 이제는 표준을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된 것이지요. 그 변화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조금이나마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여러 기관의 꾸준한 투자와 연구자들의 치열한 노력, 그리고 많은 분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덧붙이자면, 2004년부터 2년 간 제가 디지털 방송기술 분야 PM을 맡으면서 “지금까지의 영상압축 표준화 기술에서는 우리가 Follower였지만, 앞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Leader가 되어 보자”라는 비전으로 추진했던 비디오 압축기술개발 프로젝트가 그 변화의 작은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특히 지금 국제표준화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많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2000년대 초반 제가 기획하고 출범시킨 그 과제에 참여연구원이나 학생연구원으로 함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탁월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 냈고, 이후 우리나라 영상압축 표준화 분야의 든든한 인적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MPEG 표준화를 이끄는 주도적 인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때의 도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당시에는 그 비전이 조금 크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기술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뚝 선 아름드리나무의 아주 작은 뿌리쯤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학회를 구성하는 주요 연구자들이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시 그 과제를 기획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가능한 한 많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체계를 만들고, 공동 세미나를 통해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학회의 많은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 학회가 중요한 장이 되어 주었다는 점 역시, 저와 우리 학회와의 인연을 더욱 특별하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Q6. 후배 연구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후배 연구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자부심은 갖되 그 성과에 머무르지는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세우며,
역수행주 부진즉퇴(逆水行舟 不進即退) 마음으로 나아가자!”**

제가 학회장으로 처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한 신년사에서 제시한 말이 바로 “역수행주 부진즉퇴(逆水行舟 不進即退)”입니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결국 뒤로 밀려난다는 뜻입니다. 기술의 세계에서는 이 말이 더욱 냉혹한 현실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뒤처지게 됩니다. 영상압축, 방송미디어,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기술 분야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자는 계속 배우고, 질문하고, 새로운 분야와 만나고, 또 자신이 배운 것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미래를 향한 비전입니다. 비전은 아직 볼 수 없는 미래를 밝히 보여줍니다. 또한 역수행주(逆水行舟)의 상황이라도 물



걸을 거슬러 나아갈 힘을 주는 마르지 않는 에너지원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한 걸음씩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득 돌이켜 보면 그 한 걸음이 훗날 큰 변화의 시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회 역시 지금까지의 성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이 모이고, 배우고,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와 후배 연구자들이 방송과 미디어 기술의 변화 속에서 더 크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성원합니다.

저 자 소 개



전 병 우

<Education & Career>

- 1985년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1987년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 1992년 : Purdue Univ. School of Elec. 박사
- 1993년 ~ 1997년 : 삼성전자 영상정보연구소 선임/수석연구원
- 1997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교수
- 2004년 ~ 2006년 : 정보통신부 DTV PM/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디지털 TV 사업단 단장
- 2015년 ~ 2016년 :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학장

<Activity>

- 1993년 ~ 1997년 : HDTV 연구개발, 삼성전자
- 1997년 ~ 현재 : 영상압축 및 처리/응용 분야 연구개발
- 2011년 ~ 현재 : Associate Editor, IEEE Trans. Broadcasting
- 2018년 ~ 2021년 : Associate Editor, IEEE Trans.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 2025년 ~ 현재 : Associate Editor, IEEE Trans. Multimedia

<Awards>

- 2001년 ~ 2002년 : 정보통신부 장관 지정 'IT 국제표준화전문가 100인 선정'
- 2007년 :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 연구소 '우수 연구자상'
- 2016년 : 대통령 표창
- 2022년 : 대한전자공학회 해동학술상